

2000년을 기다리며

October, 2019 | By 장윤정

070 | LIFESTYLE
artist

양혜규, 1971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 장면, 국제갤러리, 서울, 2019, 사진 안천호



2000년을 기다리며

작가의 시선으로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이는 양혜규. 그의 네 번째 국내 개인전이 '서기 2000년'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찾아왔다.

글 장윤정



양혜규(右, 1971) 《스리 나는 운동 지도》 2019, 분체도장 스테인리스강 프레임, 분체도장 각자방, 분체도장 손잡이, 강선, 검정 붓시 도공된 방울, 니켈 도공된 방울, 금속 고리, 122X70X7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양혜규 스튜디오

1999년 전 세계를 관통한 이슈는 다가오는 '2000년'이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2000년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통로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날이 오고 한참 지나도 우리의 하루는 그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어떠한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

일까? 과연 20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다가오는 것일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던지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양혜규의 네 번째 국내 개인전이 <서기 2000년이 오면>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작가는 전시명 <서기 2000년이 오면>은 가수 민해경의 노래 '서기 2000년'(1982년 발표)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서기 2000년은 모든 꿈이 이뤄지는 해/ 행복한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라며 미래를 향한 낙관적 희망을 담은 노래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이 노래가 가리키는 미래의 시점이 훌쩍 지나버린 위치에서 과거의 희망을 바라본다. 즉 2000년이라는 시간성에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이 동시에 녹아든다. <서기 2000년이 오면>은 양혜규의 독특한 어법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그는 일상적 어휘를 특유의 반복과 상호 교차, 혼성으로 뒤엎는 어법을 통해 인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파고와 너비를 아우른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개인적 기억을 되짚고 혹은 관습적으로 분류되거나 의도적으로 간과된 집단적 의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학적 합리성과 자본주의가 소거한 수공과 자연의 가치, 사변적 영역을 비롯해 야만의 역사가 폄쇄한 원시 문화, 인간 세계의 산물인 시스템이 소외하고 고립시킨 정치사회적 인물과 공간을 다시금 폭넓게 바라보길 제안한다.

information

서기 2000년이 오면

기간 11월 17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K3



ABOUT ARTIST

양혜규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1994년 독일로 이주한 후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학교 슈테델슐레에서 마이스터슐레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모교인 슈테델슐레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8년 독일의 권위 있는 미술상인 볼프강 한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뉴욕 현대미술관 재개관전에서는 대형 설치 작업인 <손잡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마이애미 베스 미술관에서 개인전 <불확실성의 원뿔>을 개최한다. 2020년 여름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분관에서 예정된 개인전 등 양혜규의 활동은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며 폭넓게 진행된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퐁피두센터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양혜규, 양들규, 양승규 (보물산) 1977, 종이, 수채물감, 크레파스, 액자, 54.5X69.5cm, Private Collection, Seoul



이러한 것은 내가 키우고